

### 이원섭 일병 구속적부심 이모저모

○...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리투표를 폭로해 구속된 이원섭 일병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 2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는 이 일병의 어머니 고경애(52)씨와 형 인섭(31), 우섭(24)씨등 가족과 이지문 중위 부모, 기무사 민간인 사찰다스켓 폭로로 수배중인 윤석양 일병 어머니 그리고 유가협, 민가협, 민주당 관계자 등 40여명이 방청했다. 이날 구속적부심은 재판관인 홍순기 소령이 변호인의 변론을 최대한 보장해 이지문 중위 구속적부심 심리때와는 달리 2시간10분 동안 소란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.

○...이날 심리에서 이 일병의

영장이 발부된 날에야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집이나 외부와 연락할수있겠다는 '안도감'이 들었다고 그때의 심경을 피력했다.

○...이 일병은 이날 진술에서 국방부 합조단에 구금돼 있을 때 부대에서 일어난 대리투표를 축소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.

이 일병은 수사관들이 "너와 중대장의 대리투표 사실만 시인하기로 했으니 인사계의 대리투표 등에 대해서는 배자"고 강요했다고 말했다.

이 일병은 또 가족들과 면회 전인 지난 15일 부대 인사계·주임상사가 합조단에 와 "중대장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"면서

고 "세상 참 좋아졌다. 야당을 찍어, 너희들 투표는 서신검열기로 다 파악된다"는 등의 협박도 있었고 백지모의투표를 하는 등 중대장 지시를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.

이 일병도 중대장의 지시전 인사계가 여러차례 파견지에 직접가서 투표하자는 건의를 했으나 중대장이 이를 묵살했으며, 자신도 중대장의 전화지시에 대해 "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"라며 반문했다고 전했다.

이 일병은 이런 부대 분위기에 자신이 대리투표를 안하면 간부들이 병사들의 의견과 달리 특정후보를 찍어버릴 것으로 생각돼 자신이 직접 대리투표를 하는 것이 병사들의 참정권을 그나마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 '차선택'을 택했다고 말했다.

## “구금중 대리투표 축소압력받아”

### 국방장관 투표부정 부인발표 서글픔 잘못된 관행개선요구에 방청석 박수

변호인 안상은 변호사는 이 일병이 지난 3일 부산에 있는 부대에서 비행기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이첩된 뒤 10일 구속되기까지 '불법구금'상태에 있었다며 이때의 이 일병의 심경을 질문했다.

이 일병은 "합동조사단 수사관에 의해 서울로 호송되는 3일 최세창 국방장관이 군부재자 투표부정이 사실무근이라는 발표를 한 사실을 들었다"면서 "최장관이 내가 속한 통신사의 부정투표에 대해 알고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부정이 없었다고 밝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"고 말했다.

이 일병은 합조단에서 고문이나 폭행은 없었지만 방 천장에 있는 화재진화용 스프링클러에 감시카메라가 부착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. 이 일병은 구속

"조용히 있으면 곧 풀려날 것"이라고 1시간 동안 설득해 마음이 한때 흔들렸다고 털어놴다.

○...이날 심리에서는 이 일병의 대리투표 행위가 상관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어 한 것인지 아니면 '자의성'이 있었는지에 대해 군 검찰관과 변호인 그리고 이 일병간에 공방이 벌어졌다. 군 검찰관인 김시동 대위는 중대장이 전화로 파견군무자와 휴가자의 대리투표를 지시했을뿐 물리적 폭력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 일병이 대리투표가 불법인줄 알면서 한 것은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.

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중대장의 전화 지시에 앞서 그 부대에서는 병사들 몇명이 야당후보에 기표할 것을 알고 하사관이 내무반에 병사들을 집합시켜놓

○...이 일병은 현재의 소감을 밝히는 마지막 진술에서 "언론에 제보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"며 "국방장관의 지난 3일 투표부정이 없었다는 발언에 슬픔을 느꼈다"고 말했다.

이 일병은 이어 "군은 잘못을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"이라며 "군은 중대장을 문책하는 것보다 잘못을 시인하도록 용기를 주어야 한다"고 주문했다.

이 일병은 "이번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계기로 군이 더이상 욕먹지 않기를 바란다"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요구해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다.

심리가 끝난 뒤 이 일병의 어머니는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"우리 아들 최고다"라고 큰소리로 외쳤다.

<김성수 기자>